

안전교육 일지

담당	원장
이현주	장연자

대상연령	유아 전체	참가자	유아반 담임 및 유아 전체
활동일자	2025년 9월 15일 ~ 2025년 9월 19일	활동시간	총 20분
활동명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등 보건위생관리]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활동목표	·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 또는 보호자(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약속 할 수 있다.		
활동자료	배가 아픈 막대 인형,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안전 교수자료		
활동방법	① 배가 아픈 모습의 막대 인형을 제공하고 유아가 관심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 친구가 어디가 아픈가요? ② 유아가 그림에 관심을 보이면, 인형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 친구의 표정이 슬퍼 보이네요. - 배가 많이 아픈가 봐요. - ○○가 친구의 배가 아프지 않도록 '호' 해줄까요? - 친구는 왜 배가 아팠을까요? ③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본다. - 먹을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먹을 수 없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화장실에 있는 비누, 세제, 가글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 색이 예쁘다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④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진다. -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게 된대요. 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 또는 보호자(부모)께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 음식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맛있게 생긴 것 중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선생님 또는 부모님이 허락하는 것만 먹어야 해요. - 잊지 말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도록 하자.		
유의점	유아가 약을 무조건 나쁘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약은 아플 때 의사선생님이 주시는 만큼만 먹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준다.		
가정과 연계 활동	가정에서도 유아가 약이나 먹을 수 없는 물건을 집어 들면 반드시 부모님께 물어보고 먹기 규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평가	유아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형을 활용해 이야기 나누었으며,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교사나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약속하였다. 일부 유아는 약과 사탕, 세제와 음료수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으나, 그림 자료와 반복적인 질문·대화를 통해 먹을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하였다.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약은 반드시 어른의 허락 하에 먹어야 하고, 화장품·세제 등 생활용품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습득할 수 있었다.		



"아이들·부모님·교직원 이 행복한"

근로복지공단 전주어린이집

안전교육 일지

담임	원장
이영희	장영익

대상연령	영아 전체	참가자	영아반 담임 및 영아 전체
활동일자	2025년 9월 15일 ~ 2025년 9월 19일	활동시간	총 20분
활동명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등 보건위생관리] 나의 약만 먹어요		
활동목표	· 약물의 포장이나 색을 보고 사탕, 주스 등으로 오해하여 남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주시는 약만 먹는다는 것을 약속 할 수 있다.		
활동자료	'정해진 약만 먹어요' 안전교수 자료		
활동방법	① 약을 먹어 본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 약을 먹어 본 적 있니? - 약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 약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니? ② 안전교수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 약의 맛은 어떠하니? - 약의 색깔은 어떠하니? - 사자는 왜 배가 더 아팠니? - 약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지 사탕이나, 주스가 아니에요. 정해진 양만 먹어요. ③ 약은 선생님, 부모님이 주시는 것만 먹기로 약속한다. - 친구의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약은 선생님, 부모님이 주시는 것만 먹도록 약속하자. ④ 챗트를 불러 보며 올바르게 약을 먹는 방법에 대해 회상하며 마무리한다. - 함께 챗트를 불러보며 올바르게 약을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챗트 딸기 향이 나는 약! / 포도 향이 나는 약! / 약은 약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약을 많이 먹어도! (안돼요) 적게 먹어도! (안돼요) 약 은 정 해 진 만 큼 만! 친구가 주는 약! (안돼요) 아저씨가 주는 약 (안돼요) 엄마 /아빠 /선생님이 주시는 약만 먹어요 (그래요 그래)		
유의점	1. 약을 쉽게 먹이기 위해 '맛있는 것'이라는 표현에 유의하도록 한다. 2. 약은 영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가정과의 연계 활동	가정에도 약을 줄 때, '이건 약이야, 사탕이 아니야, 엄마/아빠가 주는 것만 먹는거야'라는 말을 반복하여 기관 및 가정에서 일관된 교육을 한다.		
평가	영아와 함께 약을 먹어 본 경험을 나누며 약은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지만, 사탕이나 음료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부 영아는 약의 맛이나 색깔에만 관심을 보이기도 했으나, 안전교수자료와 챗트를 활용해 약은 부모님이나 교사가 주는 것만 먹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다.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친구의 약이나 어른이 함부로 주는 약은 먹지 않고, 자신의 약을 정해진 양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습득할 수 있었다.		



"아이들·부모님·교직원이 행복한"

근로복지공단 전주어린이집